

## 내집단 개별화가 집단간 차별에 미치는 영향<sup>1)</sup>

위 광 회

한양대학교

집단간 차별의 문제에 관한 세개의 가설을 검증했다: (1) 집단관계에서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게 되면 외집단 차별이 감소되고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외집단을 차별할 것이다. (2) 집단관계에서 개인의 자아정체 정의와 타인의 정체 지각은 연결될 것이다. (3)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사회정체규범에 주도되어 타인 판단을 할 것이지만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4개의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실험 1, 2, 및 실험 3은 인공범주(노랑집단 대 분홍집단)를 이용하였고, 실험 4는 자연범주(인문학부집단 대 자연학부집단)를 이용했다. 개인의 자아정체 조작을 위해 Wilder(1978)의 외집단 동질성 조작을 응용하여 내집단에 처지했다. 즉, 내집단 성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 혹은 불일치하였다고 정보 제공을 다르게 하고, 내집단 성원들이 판정하고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직접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가설 1은 실험 1, 2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가설 2는 실험 3에 의해서, 가설 3은 실험 4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집단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은 범주화에 서부터 시작된다(이수원, 1989).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집단 대 집단의 만남을 가짐으로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집단간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집단간 차별은 집단에 대한 일종의 적대 행위이다. 집단에 대한 적대행위는 가장 약하게는 적대적인 말로부터 회피, 신체적 공격, 그리고 가장 강도 높은 멸종(extermination)의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Allport, 1954). 금세기 초,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은

유대인을 멸종시키고자 한 민족 집단간 차별의 극단적 양상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백인들에 의한 흑인 차별도 집단간 차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곧잘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도 집단간 차별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감정 혹은 지역차별의 문제가 한국의 사회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당면 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집단간 차별에 관한 연구는 차별행위자 개인의 성격 또는 집단간 경쟁이나, 소원함, 서로 다른 가치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Ashmore, 1970), 근래의 연구는 집단간 차별의 심리사회적 과정을 밝히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사회정체적 접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Billig와 Tajfel, 1973; Tajfel, 1970; Tajfel과 Billig, 1974; Tajfel, Billig, Bundy, 및 Flament, 1971). 그들은 전통적으로 고려되

1) 본 논문은 저자의 한양대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수록된 실험들 중 한 편을 제외시키고 요약한 것이다. 그 한편은 실험 1에서 얻어진 결과를 자연범주를 이용하여 재검증한 것으로, 본 논문의 간결성을 위해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한 권위를 받아들여 제외시켰다. 세심한 지적 감사드리며 추후, 보완 발전시켜서 발표하고자 한다.

어 온 차별의 원인 즉, 경쟁이나 다른 가치가 가정되지 않은 단순 집단구분 상황(minimal group situation)에서 집단간 차별이 일어남을 보였다. 이후, 다양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실험들에서 내집단 편애 결과를 거듭 얻어냄으로서 내집단 편애 혹은 외집단 차별이 보편적 현상임을 증명하였다(Branthwaite과 Jones, 1975; Brewer와 Silver, 1978; Tajfel, Jahoda, Nemeth, Rim, 및 Johnson, 1972). 그들은 단순한 범주화만으로 강력한 외집단 차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아고양(self-enhancement)의 심리적 과정이 내재된다고 설명한다.

사회정체이론(Tajfel, 1981)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정체는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와 사회정체(social identity)의 두가지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가 개인의 성격, 지식 또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그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들로부터 얻어지는 자아정체라면, 후자는 '나는 여성이다' '나는 학생이다'와 같이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정의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그런데 개인은 자아정체의 중요한 부분을 사회정체에서 획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긍정적인 사회범주에 속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으로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곧, 자신의 정체체가 된 내집단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편파적으로 보상하고, 평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긍정적인 정체체를 획득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를 증진하려는 욕구가 만족된다고 보았다. 사회정체이론에서는 개인정체로 자신을 정의할 때와 사회정체로 자신을 정의할 때 개인의 심리과정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다.

한편 이수원(1994)은 사회정체이론에서 개인이 가진 자아정체 고양욕구가 내집단 편애 혹은 외집단 차별을 가져 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외집단 차별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집단 차별을 하게 된 이유 즉,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외집단을 차별하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집단 차별과정은 생략된채 차별의 목적과 차별의 결과만 설명한 것이다. 이수원

(1989)은 사회적 자아중심성(social egocentrism)이 집단간 차별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자아중심성이란 개인이 자기의 자아정체를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타인도 그의 개인정체로서 지각하고, 자기의 정체를 사회정체로서 정의하면 타인 역시 사회정체로 지각하는 현상 즉, 개인의 자아정체가 타인지각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이수원, 1993).

집단간 차별의 문제에서 사회적 자아중심성을 고려하는 것은 차별자와 피차별자 혹은 지각자와 피지각자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정체이론에서는 집단간 차별의 문제에서 개인의 자아정체에만 혹은 피지각자의 자아정체에만 관심을 가졌다. 개인과 상대방 혹은 지각자와 피지각자의 자아정체의 동시적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개인의 자아정체와 그 대상의 자아정체간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아중심성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두가지 자아정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정체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진 두가지 자아정체 중 사회정체로 자기를 정의할 때 집단간 차별이 나타나고, 개인정체로 정의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의 사회정체에만 관심을 가졌다. 개인의 개인정체와 사회정체를 비교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정체(내집단)와 타인의 사회정체(외집단)를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두가지 자아정체를 고려하고, 개인과 상대방의 자아정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집단간 차별의 과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정체이론과 사회적 자아중심성 가설에 따르면 내집단을 범주화하여 개인의 정체체가 사회정체로서 정의되면 내집단 편애와 외집단 차별이 일어나고, 반대로 내집단이 개별화되어 개인의 정체체가 개인정체로서 정의되면 외집단 차별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간 차별과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의 검증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관계에서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게 되면 외집단 차별이 감소되고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외집단 차별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개인의 자아정체 정의가 타인의 정체지각

을 유도한다는 사회적 자아중심성가설이다. 세계,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사회정체규범에 주도되어 타인 판단을 할 것이지만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외집단 성원을 범주화하고 외집단 성원을 개별화하여 집단간 차별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내집단 성원을 범주화하고 내집단 성원을 개별화하였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한 개인의 개인정체 또는 사회정체 정의가 외집단 지각과 외집단 차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 실 험 1

실험 1의 중요한 목적은 내집단 개별화로써 외집단 차별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는 것이다.

Wilder(1978)는 '외집단'을 개별화(individuation)시켜서 외집단 차별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소송 사건에 대한 외집단성원들의 판정이 만장일치 혹은 불일치하였다고 정보제공처치를 다르게 해서 외집단의 동일성지각을 조작한 결과, 불일치조건에서 어느 외집단성원에 대해서나 차별적 보상분배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 한 명의 외집단 성원의 개별화를 통해 전체 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켰으므로 외집단이 개인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Miller와 Brewer(1986)는 Wilder의 실험설계를 확대 변형하여 수행한 결과, 불일치판정을 한 외집단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지각되는 조건에서는 Wilder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부정적으로 지각된 외집단 사람의 조건에서는 외집단 차별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Wilder의 집단불일치 정보제공처치가 외집단 성원을 개인화시켰다기 보다는 외집단 범주를 깨트린 즉,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집단간 차별이 문제가 되는 실제 장면에서 외집단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다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인 혹은 결과라는 사실(이진환, 1989)을 고려한다면 Miller와 Brewer(1986)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Wilder 역시 그의 논의(Wilder, 1978, p.1373)에서 자신의 개별화처치의 제한점을 "외집단

성원이 내집단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행동하여 개인화되는 상황에서 외집단의 개인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individuation may not be successful in situations where out-group members individuate themselves in the course of behaving in an aggressive or negative manner toward the in-group)"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내집단 개별화로써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될 뿐 아니라, 적대적 외집단에 대해서도 차별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를 위해 Wilder의 처치를 보완 사용하였다. 첫째, 피험자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였다. 독립변인 처치를 위하여 제공한 '판정'상황에 실험 참가자들이 실제 참여하게 하였다. 즉, 가상으로 제공한 내집단의 판정 상황을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직접 판정하게 함으로서 실제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 관여되도록 하였다. 둘째, 판정을 한 후에 개인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서명은 익명성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개인의 자아정체를 가시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이수원, 1989; Wilder, 1978). 셋째, Wilder는 가치의 오염을 우려하여 판정한 사건의 내용은 없이 판정내용만 통보하였다. 그러나 내집단 판정자 혹은 외집단 판정자를 개별화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며, 실험 참가자가 직접 판정하도록 해서 실험 상황에 관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정할 사건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건의 내용을 실험 재료로 준비했다.

본 실험의 중심 예언은 내집단 개별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37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최소 4명에서 최대 7명 단위로 2개의 실험조건(범주화조건, 개별화조건)에 할당되었다.

### 절차

개인적으로 약속한 시간에 대기실에 도착한 학생들



실험 참가자들이 소송사건 개요서를 거의 읽어갈 때에, 실험 조교가 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한다는 명분하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노랑집단원들의 판정서(다섯명의 개인판정서를 절취하여 함께 붙여 복사한 것으로 판정 내용은 실험자가 미리 조작해 놓았다)를 배부하면서 판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제시받은 판정서가 내집단성원들의 것이라는 것은 판정자들의 번호란에 기재된 1번에서 5번까지의 고유번호와 실험 참가자의 개인판정서와 동일 양식의 노랑색으로 확인하게 된다. 내집단 판정서를 배부함으로써 실험 참가자들은 2개의 실험조건 중 한 조건에 할당되었다. 범주화조건은 5명의 내집단성원 전원이 피고 유죄에 표시하고, 8000만원에서 1억원(평균 8600만원)의 배상이 판정된 판정서를 받는다. 개별화조건은 한 명의 내집단원(3번)이 다른 내집단 성원들과 반대 의견(피고 무죄, 피고가 2000만원 배상)을 제시한 것 외에는 범주화조건과 동일하다.

내집단성원의 판정서를 받고, 실험 참가자 각 개인은 가지고 있는 지시문 하단의 개인판정서에 자신의 판정을 하도록 한다. 판정이 끝난 후에는 개인의 번호와 개인의 서명을 하도록 지시된다. 개인의 판정이 끝나면 다음 번에 있을 토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외집단 판정서와 사후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외집단 판정서는 내집단 판정서와 동일한데 색이 분홍색이고 판정자의 번호가 21번부터 25번까지인 점, 그리고 내용이 다르다. 그 판정 내용은 전원 원고 유죄, 0원부터 2000만원까지 평균 1300만원 배상이 판정되어 있어서 내집단 규범(피고 유죄, 평균 8600만원배상)에 대치되는 판정들이다.

### 종속변인

내외집단에 대한 보상분배를 종속변인으로 삼았다. 보상분배의 척도는 Wilder(1978)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내집단전체 대 외집단전체, 내집단 개인성원 대 내집단 개인, 외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 내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의 2개 척도(3번 대 22번, 3번 대 25번)로서 도합 5개의 척도였다.

각 척도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 원편 밑줄의 상하단에 분배해야할 사람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상단에는 내집단 혹은 내집단 번호가, 하단에 외집단 혹은 외집단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내집단 개인 대 내집단 개인척도와 외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척도는 예외). 상하단의 두 사람에게 분배하기에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되는 한 쌍의 수직 숫자쌍을 선택하게 하였다. 보상척도의 분석은 Wilder와 같이 1/14는 1로, 7/8은 7...로 부호화하였으므로, 내외집단 개인척도를 제외한 3개의 척도에서 7.5이상의 숫자는 내집단에 더 많은 보상을 분배한 것을 의미한다.

_____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_____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결과 및 논의

내집단 개인 대 내집단 개인, 외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에 대한 보상분배에서는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집단 전체와 외집단 전체에 대해 보상을 분배하게 했을 때, 범주화조건에서 차별적 보상 분배가 나타났다. 즉, 범주화조건에서 내집단에 더욱 많은 보상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별화조건에서 내집단에 분배한 보상의 평균= 8.06, 범주화조건에서 분배한 평균= 9.45,  $F(1, 35)=6.23, p<.05$ ).

표 1에 두개의 내외집단간 보상척도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했다. 즉, 외집단 22번 혹은 25번과 짝지어진 내집단 성원 3번에 대한 보상분배의 평균이다.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F(1, 33)=6.52, p<.05$ ). 이는 예상했던 대로 실험 참가자들이 범주화조건(분배평균=8.95, 개별화조건의 분배평균=7.59)에서 내집단에 편파적 보상분배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외집단 성원들은 내집단 규범에 대치된 판정을 하였다. 외집단 성원이 부정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각될 때는 외집단의 개별화가 외집단 차별을 감소시키지 못한 선행연구(Miller와 Brewer, 1986, p. 221)를 고려할 때, 내집단 성원의 개별화를 통하여

표 1. 실험 1에서 처치조건별 보상분배 평균

내집단 조건	내집단 3번		전체
	3번/22번	3번/25번	
개별화(n=16)	7.56	7.63	7.59
범주화(n=19)	8.89	9.00	8.95

부정적인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보상행위가 감소되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별화조건에서 3번은 내집단 규범에 붙일 치 판정 즉, 외집단에 일치판정을 한 성원이다. 그러므로 개별화조건에서 3번과 22번 혹은 25번과의 보상분배는 중립적이 될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 실 험 2

실험 1에서는 내집단 규범과 대치되는 판정을 하는 외집단 성원만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적대적 외집단 다수 속에 한 명의 친내집단적 외집단 성원을 제시하여 내집단 개별화처치를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친내집단적 외집단 성원과 반내집단적 외집단 성원을 구별(differentiate)하지 않으나, 범주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외집단 성원과 반내집단적 외집단 성원을 구별하여 차별할 것이라는 예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40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 절 차

실험 1과 실험설계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독립변인 조작 마지막에 제시되는 외집단 판정서의 내용이 다른데, 한 명의 외집단 성원(22번)이 다른 외집단 성원과 다른 판정(피고 유죄, 피고가 8000만원 배상) 즉, 친내집단적 판정을 하였다.

## 결과 및 논의

내집단 개인 대 내집단 개인, 외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에 대한 보상분배에서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내집단 전체 대 외집단 전체에 대한 보상분배에서는 차이의 경향성만 나타났다(개별화조건에서 내집단에 대한 분배 평균=7.84, 범주화조건에서 내집단에 대한 분배 평균=8.81:  $F(1, 38)=3.12, p=.085$ ). 이것은 한 명의 친내집단적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의 효과일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내집단 개인 대 외집단 개인간의 보상분배 척도에서 얻어진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표에서 보듯이 내집단 성원 3번과 외집단 성원을 다르게 짚지워 분배하게 한 결과, 다르게 보상을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주화조건에서 22번과 3번을 짚지었을 때는 공평한 분배(평균= 7.40)를 하였으나, 25번과 짚지었을 때는 내집단 성원에 대해 편파적 분배(평균=9.10)를 한 것이다.

표 2를 가지고 변량분석한 결과 2원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F(1, 37)=3.59, p=.066$ ). 각 내집단조건내에서 다른 외집단 분배작의 단순효과의  $t$  검증을 해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범주화조건에서의 차이가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개별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판정을 한 22번과 반내집단적 판정을 한 25번 간에 다른없는 보상을 분배하였지만, 범주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판정을 한 외집단 사람에게는 내집단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을 분배하였으나(3번/ 22번= 7.40/ 7.60), 반내집단적 외집단 사람에게는 차별적 보상분배를 하였다(3번/ 25번= 9.10/ 5.90 :  $t=3.02, df=19, p=.007$ ).

이러한 결과는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에 반 대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과 친내집단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음을 보여

표 2. 실험 2에서 처치조건별 보상분배 평균

내집단 조건	내집단 3번		전체
	3번/22번	3번/25번	
개별화(n=19)	7.42	7.74	7.58
범주화(n=20)	7.40	9.10	8.25

주는 것이다. 즉, 개인 대 개인으로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정이 차별적보상분배의 준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주화조건에서는 집단정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동일시하고 상대방을 집단정체로서 지각하기 때문에 내집단 규범에 근거하여 내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보상분배를 하는 것이다. 실험 3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검증할 것이다.

### 실 험 3

실험 3의 목적은 실험 1, 2의 결과들이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아중심성에서 얻어졌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아중심성이란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타인도 그의 개인정체로서 지각하고,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타인 역시 사회정체로 정의하는 현상이다(이수원, 1993). 실험 3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실험 1, 2와 동일한 인공범주 상황과 설계에서 수행하였다. 먼저 두가지 처치조건 즉, 개별화조건과 범주화조건이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각각 개인정체와 사회정체로 정의하도록 하였는지 검증하고 다음 개인의 정체정의와 외집단 사람의 지각된 정체가 연결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첫째로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에 대해서 개개인들의 집합으로 지각하고, 나아가 외집단도 개개인들의 집합이라고 표상하며,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을 단일 집단으로 표상하고 외집단도 집단으로 표상할 것으로 예언하였다. 둘째로,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에서 더 자유롭지만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 규범에 더욱 동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번째, 개인정체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에 주도되지 않을 것이나 사회정체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이 내면화되어 타인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다. 네번째 예언은 사회정체조건에서 외집단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변산성을 더 낮게 지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개인정체조건에서는 내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보중심으로 기억할 것이지만 사회정체조건에서는 범주중심으로 내외집단 관련 정보를 기억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45명이 참가하였다.

#### 절 차

실험 절차는 실험 1, 2와 거의 같았으나 외집단판정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달랐다. 외집단 판정서는 외집단의 정체를 지각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 종속변인

**내집단에 대한 개념표상** 내집단에 대한 개념표상은 “노랑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느꼈습니까? 독립된 개개의 집합으로 느꼈습니까?” 라는 진술문에 대해 9점 척도상(개인의 집합: 1-9 : 단일 집단)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외집단에 대한 개념표상** “분홍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느꼈습니까? 독립된 개개의 집합으로 느꼈습니까?” 라는 진술문에 대해 역시 9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집단규범에 대한 동조** 개인판정서(그림 1)에서 피고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 내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것이며, 피고의 배상액을 8000만원에 가깝게 판정할 수록 동조하는 양이 큰 것이다. 판정된 배상액은 소송청구액 1억원에 대한 백분율로 부호화하였다.

**외집단 성원 평가** 실험에 참가한 외집단 성원의 개인 판정서를 내집단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서와 불일치하는 판정서로 조작, 자극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찬성도, 호감도, 개인특성을 판단하게 하고 개인 판정행위에 대해 귀인하게 했다. 이러한 평가문항은 규범가치의 내면화를 보여줄 것이다. 즉, 범주화조건에서는 집단정체로서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집단규범이 곧 개인의 가치가 되므로 외집단 성원에 대한 찬성도와 호감도 평정에서 내집단 규범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이다. 반면에 개별화조건에서는 개인정체로서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에 내집단 규범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찬성도와 호감도는 “분홍집단원의 판정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마음에 드십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해 9점 척도상(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9 : 매우 찬성한다)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특성에 대한 판단은 “분홍집단원의 판정을 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해 두쌍의 형용사를 각각 9점 척도(매우 비합리적이다: 1-9 : 매우 합리적이다, 매우 비인간적이다: 1-9 : 매우 인간적이다)로 구성하여 평정하도록 함으로서 측정하였다.

권인은 신념과 상황의 두 원인에 100점 강제 할당 방식이었다.

변산성지각 변산성 점수는 Linville 등(Linville, Fischer 및 Salovey, 1989)의 방법을 따라 다양성, 변별성, 및 중심경향성의 세가지 점수를 산출하여 다양성과 변별성을 변산성의 지표로 삼았다. 피고의 유죄에 대한 측정을 예로 든다면 “만일 분홍집단원이 100명 있다면 이들의 의견분포가 어떻게 되겠는지”와 같은 진술문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7점척도를 이루는 항목들의 각 괄호안에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적어 넣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림 2의 괄호 안 숫자와 같이 실험 참가자가 답했을 때, Linville등에 의한 정의와 산출 공식 그리고 산출 예를 아래에 제시하겠다. 공식에서  $p_i$ 는 해당 특성에 대해  $m$ 척도의  $i$ 수준에서 범주 성원들이 존재할 비율을 나타낸다.  $X_i$ 는  $i$ 수준의 척도값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sum_{i=1,m} p_i = 1.0$ 이 될 것이다.

중심경향성(central tendency)  $M = \sum_{i=1,m} p_i X_i \Rightarrow 0.1 + 0.2 \times 2 + 0 \times 3 + 0.4 \times 4 + 0 \times 5 + 0.2 \times 6 + 0.1 \times 7$

= 4.0, 이는 지각된 변산성의 평균값(mean)을 나타내는 것으로, 7점 척도에서 4점에 해당하는 ‘그저 그렇다’를 중심 경향성으로 택했음을 나타낸다.

변별성(attribute differentiation)  $= 1 - \sum_{i=1,m} p_i^2 \Rightarrow 1 - (0.1^2 + 0.2^2 + 0^2 + 0.4^2 + 0^2 + 0.2^2 + 0.1^2) = 0.74$ , 변별성은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무선으로 두 사람을 뽑았을 때 주어진 문제에서 다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피고의 유죄’문제에서 분홍집단의 무선적인 두 성원이 다를 수 있는 확률이 74%임을 나타낸다.

다양성(perceived variability)  $= \sum_{i=1,m} p_i (X_i - M)^2 \Rightarrow 0.1 \times (1-4)^2 + 0.2 \times (2-4)^2 + 0 \times (3-4)^2 + 0.4 \times (4-4)^2 + 0 \times (5-4)^2 + 0.2 \times (6-4)^2 + 0.1 \times (7-4)^2 = 3.0$ , 다양성은 관련 문제에서 집단 성원들이 중심경향성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나타낸다. 점수가 적을 수록 중심경향성에 모여있는 것이다. 7점 척도에서 다양성의 최고값은 9이다.

회상의 오류 소송사건 관련 발언을 소송사건의 원전(박광배, 1994, 제 4 장)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8개를 구성했다. 대학생 30명에게 사진 검사를 하여 산출된 평균값에 따라 발언자의 번호를 1번에서 4번(내 집단 성원), 31번에서 34번(외집단 성원)으로 부여하여 각각 노랑종이와 분홍종이에 제시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발언자의 번호와 제시받은 종이의 색으로 내 집단발언인지 외집단의 발언인지 알 수 있다. 각 발언이 내포한 의미를 추정하게 하는 등 간섭과제를 실시한 후, 사후질문지 마지막에 발언들을 무선으로 제시하고 발언자를 회상하게 하였다. 발언 일부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분홍집단은 사건에서							
( 10 )	+( 20 )	+( 0 )	+( 40 )	+( 0 )	+( 20 )	+( 10 )	=> 100 명
절대적으로 피고가유죄	피고가 유죄	다소 피고 유죄	그저 그렇다	다소 원고 유죄	원고가 유죄	절대적으로 원고가유죄	라고 판정

그림 2. 지각된 변산성의 측정도구 예



사람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변태인을 비롯한 모든 산모가 정상 아를 출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악을 비롯한 모든 산모가 조사에 응한 것도 아니다(1번).

동물실험결과를 대상이 동물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다(31번)

정보회상의 오류량은 Taylor 등(Taylor, Fiske, Etcoff, 및 Ruderman, 1978)의 방식을 따라서 집단간 오류량과 집단내오류량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집단간 오류량은 노랑집단 예컨대, 1번을 분홍집단 성원 중의 한 사람으로 잘못 회상한 오류 양(NB오류)과 분홍집단 예컨대, 31번을 노랑집단 성원 중 한 사람으로 잘못 회상한 양(BN오류)의 합이다. 집단내 오류량은 노랑집단 성원 예컨대, 1번을 다른 노랑집단 성원으로 잘못 회상한 양(NN오류)과 분홍집단 성원 예컨대, 31번을 다른 분홍집단 성원으로 잘못 회상한 양(BB오류)의 합이다.

### 결과 및 논의

#### 내집단 처치와 개인의 정체성의

내집단에 대한 개념표상: 개별화조건과 범주화조건에서 각각 3.22와 5.63으로 내집단에 대한 개념을 표상하여( $F(1, 41)=11.871, p<.001$ ), 처치의도대로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을 개개인의 집합이라고 표상한 반면, 범주화조건에서는 단일 집단이라고 표상하였다고 하겠다.

집단규범에 대한 동조: 범주화조건에서는 실험 참가자 전원이 내집단 규범과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데(20명 전원, 피고 유죄 판정), 개별화조건에서는 39%의 실험 참가자(9명/23명)가 내집단 규범과 불일치한 원고 유죄판정을 하고 61%(14명/23명)만이 내집단 규범에 동조하였다( $\chi^2=9.897, df=1, p=.001$ ).

피고 배상액의 판정에서 범주화조건에서 피고가 더욱 많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개별화조건, 청구액의 59% 배상 판정;

표 3. 외집단 개인판정서에 대한 찬성도 평균(SD)

내집단 조건	판정서 내용	
	내집단 일치	내집단 불일치
개별화(n=22)	6.46(1.14)	3.27(1.27)
범주화(n=19)	7.37(1.49)	2.37(1.38)

\*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1) - (9) 매우 찬성한다

범주화조건, 74% 배상 판정:  $F(1, 41)=2.522, p=.120$ ).

찬성도: 표에서 보듯이 처치조건에 따라 개인의견에 대해 다른 찬성도를 얻었다. 즉, 범주화조건에서 내집단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에 크게 찬성하고 내집단 규범에 불일치하는 판정에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9)=6.66, p<.05$ ).

개인특성 판단: 외집단의 개인의견서를 보고 그의 합리성을 평정한 평균점수에서만 처치조건간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F(1, 41)=3.62, p=.064$ ). 즉,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 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을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내집단 규범에 불일치하는 판정에 대해서 더욱 불합리하다고 지각(각각 6.95, 3.80)한 반면, 개별화조건에서는 덜 극단적으로 평가하였다(각각 6.09, 4.92).

외집단 판정에 대한 귀인: 내집단 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자의 판정에 대한 귀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신념으로 귀인하여 차이가 없었다(개별화조건 평균=66.48, 범주화조건 평균=68.50). 내집단 규범에 불일치하는 판정에 대해서 처치조건 간 신념귀인의 차이가 나타났다(개별화조건 평균=68.22, 범주화조건 평균=51.05:  $F(1, 41)=5.35, p<.05$ ). 내집단 규범에 일치, 불일치의 두가지 외집단 판정에 대한 신념 귀인을 실험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고, 내집단조건을 실험 참가자간 변인으로 하여 2원 변량분석한 결과, 2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41)=7.26, p<.01$ ).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이든 불일치하는 판정이든 개인의 소신에 의한 판정으로 보았으나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에 일치하는 판정을 개인의 소신으로 본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내집단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을 개개인의 집합으로 표상하고 실험사건의 판정에서

집단 규범에 구애됨이 없이 판정하였으며 외집단의 개인판정에 대한 지각에서도 자유롭게 소신껏 판정하였다. 반면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을 집단으로 표상하고 내집단 규범에 동조한 것에서 나아가 외집단 사람들이 내집단 규범을 지지하면 크게 찬성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내집단 규범을 지지하지 않으면 크게 반대하고 불합리한 판정이라고 판단하며, 내집단규범에 일치하는 판정행위만을 개인의 신념으로 귀인하였다. 이는 내집단규범에 주도되어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집단 규범이 내면화되어 타인을 지각하는 인식의 틀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개별화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실험 처치가 실험자의 의도대로, 실험 참가자로 하여금 개인정체 혹은 사회정체로 정의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체가 집단 차별을 일으키는 과정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 개인의 정체 정의와 외집단 정체 지각

**외집단개념 표상** 개인의 정체정의와 상대방의 정체지각이 연결될 것이라는 예언이 일차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외집단을 개인의 집합이라고 표상하였으며,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외집단도 단일한 집단이라고 표상하였다(개별화조건 평균=3.62, 범주화조건 평균=5.40:  $F(1, 40)=6.159, p<.05$ ).

**지각된 외집단 변산성** 외집단의 변산성지각에서도 개인의 정체정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사건의 피고 유죄에 대해서 개별화조건에서 외집단의 다양성을 높게 지각(개별화조건 평균=2.43; 범주화조건 평균=1.58 :  $F(1, 41)=6.899, p<.05$ )하였으며, 외집단 성원들의 변별성을 높게 지각하였다(개별화조건 평균=.71;

범주화조건 평균=.61 :  $F(1, 41)=6.057, p<.05$ ). 피고 배상액 판정에서도 개별화조건에서 외집단의 높은 다양성을 지각했다(개별화조건 평균=2.88; 범주화조건 평균=1.45 :  $F(1, 41)=4.315, p<.05$ ).

**집단관련 정보의 회상오류.** 집단 관련 발언의 발언자를 회상하게 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했던 대로 집단내 오류량은 범주화조건에서 더 많고(개별화조건 평균, 2.74; 범주화조건 평균, 3.75:  $F(1, 41)=4.56, p<.05$ ), 집단간 오류량은 개별화조건에서 더 많았다(개별화조건 평균, 2.78; 범주화조건 평균, 1.65:  $F(1, 41)=4.67, p<.05$ ).

표 4의 결과를 가지고 실험조건을 실험 참가자간 변인으로 삼고 4가지 오류량을 실험 참가자내변인으로 하여 3원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과 집단내 오류량, 집단간오류량의 두가지 오류량간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 $F(1, 41)=6.75, p<.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화조건에서 집단간 오류량이 적고 집단내오류량이 더 많다는 것은 집단간 차이의 지각에 오류가 적고 집단내 개인간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정체로 정의할 때, 내외집단 성원에 대한 정보를 집단범주 중심으로 처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Hewstone, Hantzi, 및 Johnston, 1991; Taylor, Fiske, Etcoff, 및 Ruderman, 1978) 상대방 역시 사회정체로 지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를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상대방도 그의 개인정체로서 지각하고, 자신을 사회정체로서 정의하면 상대방 역시 사회정체로서 지각할 것이라는 사회적 자이중심성 가설이 지지되었다.

## 실 험 4

실험 3에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 규범에 구속되어 타인을 지각하게 되는 과정, 즉 사회정체가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험 3에서는 외집단의 개인의견만을 자극으로 제시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외집단성원의 개인 의견과 내집단 성원의

표 4. 실험 3에서 처치조건별 회상오류량

내집단조건	집단내오류		집단간오류	
	NN	BB	NB	BN
개별화(n=23)	1.26	1.48	1.48	1.30
범주화(n=22)	2.00	1.75	.80	.85

\* N=노랑집단 즉, 내집단; B=분홍집단 즉, 외집단. 예컨대, NB라 함은 노랑집단원을 분홍집단원으로 잘못 회상.

개인의 의견을 자극으로 삼아 개인의 개인정체 정의가 어떻게 집단간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 과정을 구명하고자 했다.

예언들은 실험 3에서의 것을 구체화시켰다. 첫째로, 내외집단 성원의 개인 의견에 대한 찬성도 판단에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 규범을 지지하였는지 하는 지지정보에 의존할 것이나, 개인정체로 자신을 정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내외집단 성원의 개인 의견에 대한 호오도 판단에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지지정보에 의존할 것이나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 규범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가적인 인상형성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본 실험에서는 '인문학부생/자연학부생'이라는 자연범주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실험 재료는 '21세기 대비 대학 발전안'에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주도적 위치 점점의 내용으로서, 이는 한양대학교의 3단계 대학발전계획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인문과학 논쟁(뉴스위크지 1980: 연세춘추, 1980, 10, 20 재인용)'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인문학부생들의 정체에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한양대학교에서 정신위생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문과학을 전공하는 42명이 참가하였다.

### 절 차

실험 절차는 실험 3과 동일하였으며 실험재료인 두가지 입장은 위광희와 이수원(1997)에서 인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입장 ①** 인문과학은 모든 분야의 기초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 몇 사티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미흡하고 사티에 진출해서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문을 겪게 되기 일췌이다.

서구사를 통해서 볼 때 인문과학은 사상적 정

수를 꺾는 지식, 비판적 사고, 윤리의 본연적 격과 신미안 등으로 교육받은 이의 표상인 동시에 면중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런데 학부제 실시이후 97년도 학과지원에서 나타난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독문과, 복문과 2-3명, 신학과, 철학과 1-2명 혹은 전무... 등으로 전통적 인문과학의 요강이었던 학문의 존재위기가까지 몰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곧 사회의 불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대학이 국제수준의 명문사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발전계획의 차표를 대학 본연의 「순수 아카데미즘」으로 하고, 인문과학기금을 조성하여 여타분야에 뒤지는 인문과학에의 재정보조를 늘려서 줄어드는 지원자, 축소되는 재정, 낮아진 의욕을 키워야 한다. 또한 인문과학의 부흥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들이 우수한 인문학도등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데, 인문학도등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대학측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대학은 자유의 정의에 기초한 진리의 추구라는 대학의 근본을 다하며, 21세기 역사발전의 향도자로서의 앞서 나가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장 ②**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에 둔 지금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 다양한 치달고 있다. 짧은 과학기술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세계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학기술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소명이 진리추구에 있지만 진공관 속에만 머무는 진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티에 힘어 되는 대학이 진정한 역사발전의 향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열에 재정적 지원이 편중되었다고 하는 하나 자연과학은 인문과학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조작한 계획아래 실험하고 측정하여야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 경험위주의 실험식 학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이 명문사학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현식습시성이 필수 불가결하고, 예산이 다소 편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본 대학은 매우 큰 액수의 식현식습비에 산을 책정하고 의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인형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우선 최첨단기자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기자재관리전문요원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낡고 구식의 기초 식현기자재등을 장부상의 기록을 위해 폐기처분하지 못하는 식정에서 벗어나 사용기간에 따른 정기적 교환을 정례화하는 등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에는 '21세기 대비 대학 발전안'에 대해서 인문학부생과 자연학부생이 만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을 것인데 오늘은 사전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인문학부생은 1번부터 15번까지, 자연학부생은 21번부터 35번까지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모든 모임이 고유번호로서 진행된다고 하였다(실험참가자 전원은 인문학부생이었으며, 7번에서 15번까지만 부여됐다).

실험 참가자들이 지시문을 읽고 두가지 입장의 실험재료를 볼 때, 내집단의 개인의견서모음이 배부된다. 내집단의견서는 내집단 1번부터 5번까지의 의견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범주화조건에게는 내집단 전원이 입장 ①에 70점부터 90점까지 평균 80점을 할당하고 나머지 점수를 입장 ②에 할당한 의견서들이 제시되었으며, 개별화조건에게는 3번만이 입장 ①에 25점, 입장 ②에 75점을 할당한 의견서를 배부한 점이 다르다.

내집단의견서모음을 참고하여 지시문 하단에 있는 개인의견서에 실험 참가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시된다. 개인의견서에는 입장 ①과 입장 ② 중에서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그 지지 정도를 합해서 100점이 되도록 할당하도록 하였다. 역시, 의견제시자의 번호를 쓰고 싸인을 하도록 하였다.

개인의견서에 각 참가자들의 의견제안이 끝나면 종속변인 측정을 위한 사후 질문지가 배부된다.

## 종속변인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외집단 성원들의 개인의견서를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내외집단 성원들의 개인의견서는 실험 참가자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다음 토론을 위하여 잘 보고 질문지에 답해주도록 하였다. 실제 실험 참가자들의 것을 절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개인의견서 각각을 질문지 상단에 핀으로 첨부해서 제시했다. 모두 4매로서 집단범주정보와 지지정보를 교차하여(내집단, 외집단 : 2 × 2 : 내집단 지지, 외집단 지지) 연구자가 사전에 조작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집단 · 내집단지지: 인문학부생이 입장 ①에 75점, 입장 ②에 25점을 할당.

내집단 · 외집단지지: 인문학부생이 입장 ①에 30점, 입장 ②에 70점을 할당.

외집단 · 외집단지지: 자연학부생이 입장 ①에 23점, 입장 ②에 77점을 할당.

외집단 · 내집단지지: 자연학부생이 입장 ①에 80점, 입장 ②에 20점을 할당.

내집단, 외집단의 집단 범주정보는 의견제시자의 번호로써, 지지정보는 입장 ①과 입장 ②에 할당된 점수로써 제공된다. 여기에서 입장 ①은 인문입장 즉, 내집단의 입장이며 입장 ②는 자연입장 즉, 외집단의 입장이다.

이상의 개인의견서를 자극으로 삼아 측정할 종속변인은 찬성도, 호감도, 개인 특성 판단이다.

**찬성도** 각 개인의견서의 의견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1) - (9)매우 찬성한다'라는 진술의 9점 척도상에서 찬성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찬성도점수에서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을 산출하였는데 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범주정보 사용량은 제안자가 내집단성원인지 외집단성원인지 하는 범주

정보를 사용하여 찬성한 양을 가리킨다. 반면에 지지 정보 사용량은 내집단 규범과 일치하는 의견인지 즉, 지지입장을 보고 찬성한 양을 가리킨다. 기술의 편의상 '내집단 성원의 내집단 지지' 의견을 이하 '내집단내지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겠으며 여기에서는 그 의견에 찬성한 값을 가리킨다.

$$\begin{aligned} \text{범주정보 사용량} &= (\text{내집단내지지} + \text{내집단외지지}) \\ &\quad - (\text{외집단내지지} + \text{외집단외지지}). \\ \text{지지정보 사용량} &= (\text{내집단내지지} + \text{외집단내지지}) \\ &\quad - (\text{내집단외지지} + \text{외집단외지지}). \end{aligned}$$

**호감도** '마음에 들지 않다(1) - (9)마음에 든다'라는 진술의 9점척도상에서 개인의견 제안자에 대한 호감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찬성도 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호감도점수에서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을 산출하였다. 호감도에서 범주정보 사용량 점수가 클 수록 외집단 성원보다 내집단 성원을 좋다고 평정한 것이며 지지정보 사용량 점수가 클 수록 내집단 규범에 일치하는 의견 제안자를 더 좋다고 평정한 것이다.

**특성 판단** 이지연(1997)이 어른의 권위에 대한 성격특성으로 사용한 도전특성과 복종특성 중에서 각각 '진취성'과 '선량성'을 선택, 사용했다. 두가지 형용사에 대해서 '진취성없다(1) - (9)진취성있다', '못됐다(1) - (9)착하다'의 9점척도로 구성하여 개인의견 제안자의 특성을 판단하게 했다.

## 결과 및 논의

**찬성도** 표 5를 보면 범주화조건에서 내집단을 지지하는 의견에 대하여 크게 찬성하고 외집단을 지지하는 의견에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별화조건에서는 외집단을 지지하는 의견에 대하여 더 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변량분석을 한 결과, 처치조건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F(1, 28)=.38, n.s.$ ), 지지정보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F(1, 28)=9.75, p<.01$ ) 처치조건과 지지정보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므로( $F(1, 28)=19.67, p<.001$ ) 앞서

표 5. 처치조건별 개인의견에 대한 찬성도 평균

범주 정보	내집단		외집단	
	내지지	외지지	내지지	외지지
개별화(n=14)	4.57	5.36	4.57	5.14
범주화(n=16)	7.31	3.44	6.75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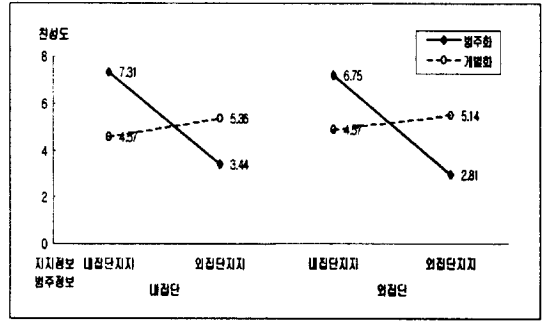


그림 3. 개인의견 제안자에 대한 지지정보와 범주정보의 공존시 찬성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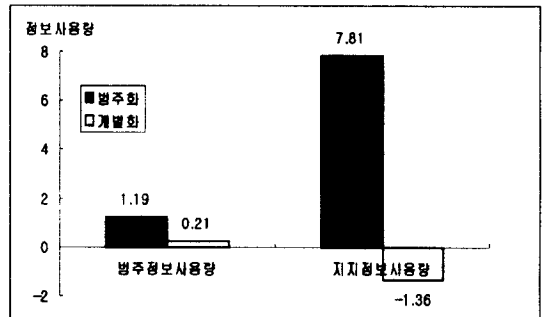


그림 4. 개인 의견에 대한 찬성도 판단에서 처치조건별 두가지 정보사용량

의 분석이 지지되었다고 하겠다. 표 5의 찬성도 평균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 3으로 표시하였다.

찬성도 평균에서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을 산출한 결과, 예전대로 범주화조건에서 지지정보 사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범주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 1.19; 지지정보 사용량, 7.81 : 개별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 .21; 지지정보 사용량, -1.36). 여기에서 '-'값(지지정보 사용량, -1.36)은 내집단을 지지하는 의견보다 외집단을 지지하는 의견에 대해서 더 찬성하였음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F(1,$

28)=21.22,  $p<.001$ ), 처치조건과 정보 사용량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1, 28)=13.52, p<.001$ ). 각 처치조건에서 정보 사용량의 단순효과를  $t$  검증해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개별화조건에서는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이 차이 나지 않았으나 범주화조건에서는 지지정보를 사용하여 찬성도를 평정하였다( $t=5.76, df=15, p=.000$ ). 이를 알기 쉽게 그림 4로 나타냈다.

**호감도.** 표 6에서 보듯이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을 지지하는 의견 제안자에 대하여 호감을 나타내고 외집단을 지지하는 제안자에 대하여 반감을 나타내지만 개별화조건에서는 개인의견 제안자간에 호감도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범주정보의 주효과가 있었으며( $F(1, 39)=4.98, p<.05$ ) 지지정보의 주효과가 있었고( $F(1, 39)=11.24, p<.01$ ), 처치조건과 집단정보간 상호작용효과( $F(1, 39)=5.88, p<.05$ )와 처치조건과 지지정보간 상호작용효과( $F(1, 39)=8.30, p<.01$ )가 나타나서 앞의 분석이 지지되었다. 표 6을 알기 쉽게 그림 5로 제시했다.

이상의 호감도 평균에서 처치조건별 범주정보사용량과 지지정보사용량을 산출한 결과, 범주화조건 지지정보 사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범주화조건 지지정보 사용량, .05; 지지정보 사용량, 4.62 : 개별화조건 지지정보 사용량, -1.15; 지지정보 사용량, .35). 여기에서 '-1.15'가 의미하는 바는 내집단 범주보다는 외집단 범주를 오히려 마음에 든다고 평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의 주효과( $F(1, 39)=13.24, p<.001$ ), 정보 사용량의 주효과( $F(1, 39)=14.05, p<.001$ )가 있었고, 처치조건과 정보사용량간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이 있었다( $F(1, 39)=3.60, p=.065$ ).

표 6. 처치조건별 의견제안자에 대한 호감도 평균

\범주 정보	내집단		외집단	
	내지지	외지지	내지지	외지지
개별화(n=20)	5.30	5.80	6.55	5.70
범주화(n=21)	6.43	4.52	6.81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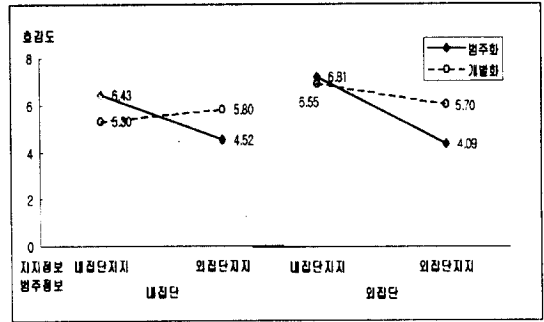


그림 5. 의견제안자에 대한 지지정보와 범주정보의 공존시 호감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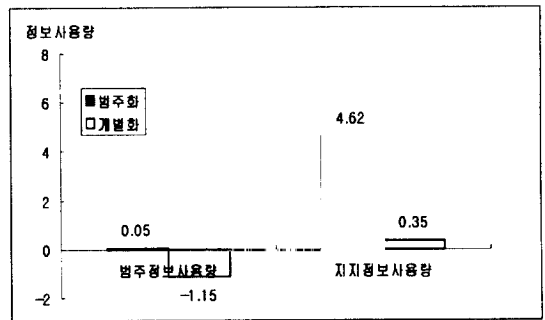


그림 6. 의견제안자에 대한 호감도 판단에서 처치조건별 두가지 정보사용량

각 처치조건 내에서 정보 사용량의 단순효과를  $t$  검증해본 결과, 예언대로 정보사용량의 주효과는 범주화조건에서의 차이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개별화조건에서는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이 차이 나지 않았으나 범주화조건에서는 지지정보에 의존하여 대상에 대한 호감도를 판단하였다( $t=5.10, df=20, p=.000$ ). 이를 알기 쉽게 그림 6으로 나타냈다.

**특성판단.** 개인의 정체성의 특히 사회정체로 자신을 정의하면 사회정체규범이 내면화되어 타인의 개인 특성 판단의 잣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의 견 제시자의 진취성과 선량성을 평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표 7과 표 8에 제시했다.

표 7에서 보듯이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을 지지하는 외집단성원을 진취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외집단성원을 지

표 7. 처치조건별  
개인의견 제언자에 대한 진취성평정 평균

\범주 정보	내집단		외집단	
	내지지	외지지	내지지	외지지
개별화(n=20)	4.75	6.85	5.70	6.15
범주화(n=21)	5.67	6.05	6.71	5.05

지하는 내집단성원을 진취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과 내집단지지 혹은 외집단지지의 지지정보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1, 39) = 8.97, p < .01$ ). 각 처치조건 내에서 개인의견서 내용의 단순효과를  $t$  검증한 결과, 범주화조건에서는 외집단의 내집단지지자와 외집단의 외집단지지자간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t = 2.53, df = 20, p = .020$ ). 반면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의 내집단지지자와 내집단의 외집단지지자간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서( $t = 2.94, df = 19, p = .008$ ), 이상의 분석을 지지해 주었다.

표 8에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집단을 지지하는 사람을 선량하다고 지각하지만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면 개인의 선량성지각에서 내집단지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변량분석한 결과, 처치조건과 범주정보간 상호작용효과와 경향성이 나타났다( $F(1, 39) = 3.56, p = .067$ ). 각 처치조건 내에서 개인의견서 내용의 단순효과를  $t$  검증한 결과, 범주화조건에서 내집단의 내집단지지자와 내집단의 외집단지지자에 대한 평정간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t = 2.26, df = 20, p = .035$ ). 또한 외집단의 내집단지지자와 외집단의 외집단지지자 간에서도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t = 3.05, df = 20, p = .006$ ). 반면, 개별화조건 내에서는 의의있는 차이가 나지 않아서 처치조건과 내외집단 개인의견서간의 상호작용은 범주화조건에서의 지지정보간 차이나는 평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8. 처치조건별  
개인의견서 제언자에 대한 선량성평정 평균

\범주 정보	내집단		외집단	
	내지지	외지지	내지지	외지지
개별화(n=20)	5.55	5.15	5.40	4.75
범주화(n=21)	5.71	5.05	5.91	4.95

이번에는 각 집단규범에 불일치한 의견제언자(내집단외지지자와 외집단내지지자)에 대한 진취성과 선량성 평정평균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처치조건을 실험 참가자간 변인으로 하고, 내집단/외집단과 진취성/선량성을 실험 참가자내 변인으로 하여 3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처치조건과 내외집단간 2원상호작용효과와 경향성( $F(1, 39) = 3.56, p = .067$ )이 있었고, 처치조건, 내외집단, 및 진취성/선량성 간 3원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F(1, 39) = 5.49, p < .05$ ). 범주화조건에서는 외집단내지지자를 진취적이고 선량하다고 인상을 형성한 반면, 개별화조건에서는 내집단외지지자를 진취적이라고 인상을 형성한 것이다.

## 전 체 논 의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내집단 개별화를 통하여 외집단 차별이 감소되었다. 또한 개별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외집단 성원이나 반내집단적 외집단 성원이나 모두에 대하여 차별을 감소시킨 반면, 범주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개인행위를 한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만 차별을 감소시켰다. 둘째, 내집단 개별화처치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정체로 정의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건에서는 상대방을 개인정체로 지각하였다. 반면, 내집단 범주화처치는 사회정체로 자신을 정의하도록 하였고 상대방 역시 사회정체로 지각하였다. 셋째,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사회정체규범을 자신의 가치로 삼아, 내집단규범을 지지하였는지 하는 지지정보 주도적으로 집단 성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였다. 이들 결과를 두가지 소제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 내집단 개별화가 감소시킨 외집단 차별

실험 1에서 내집단 규범에 불일치하는 부정적 외집단에 대한 보상분배에서도 개별화조건에서는 외집단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별화된 내집단 성원 3번의 판정이 바로 외집단의 판정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실험 1에서 얻어진 결과가 오염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 2에서는 내집단

규범에 일치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을 설정하여, 친내집단규범적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과 반내집단적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에 대한 분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범주화조건에서는 친내집단적 판정을 한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았으나, 반내집단적 판정을 한 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하였다. 그러나 개별화조건에서는 두 외집단 성원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한 분배를 하였다(표 2). 이 결과는 개별화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이 전부 개인화되었으며, 이 때 외집단 성원들도 개인화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Miller와 Brewer(1986)는 '개별화된(individuated)' 상태를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로 지각된 상태와 동일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타인의 정체를 타인의 개인정체로서 지각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구하며, 그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으로서 지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그러므로 개인화된다는 것은 개인의 속성가(valence)가 문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할 때는 외집단 사람의 속성가를 문제삼지 않고 그의 독특한 개인정체로서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집단 개별화(Wilder, 1978)로서 부정적 외집단 성원에 대한 차별이 감소되지 않은 것은 외집단 개별화가 외집단을 개인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Miller와 Brewer, 1986, p222).

Wilder는 자신의 기법을 '내외집단범주화를 바꾸는 기법(techniques that alter the ingroup/outgroup categorization : Wilder, 1981, p235)'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외집단은 내집단에 비해서 동질적이어서 비개성적이고, 친숙하지 않고 익명적이므로(Park과 Rothbart, 1982) 외집단의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내집단 성원과 같이 개별성을 부여하면 집단간 차별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특정 외집단 성원의 의견의 조작으로 외집단의 동질성을 처치하여 외집단의 개별화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불일치 외집단이 내집단에 긍정적이거나 내집단과 유사하면 Wilder가 의도한대로 쉽게 외집단 범주가 약화되어 외집단이 내집단이 되므로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지만, 불일치 외집단이 내집단에 부정적이거나 내집단과 다르다고 지

각되면 외집단 범주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자 자신의 정체는 내집단 정체인 채로 있기 때문이다. 지각자가 자신의 정체를 개인정체로서 정의할 때 타인의 정체를 개인정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각자가 자신의 정체를 사회정체로서 정의할 때, 타인의 정체를 개인정체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정체는 독특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만 사회정체는 유사성 혹은 일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Wilder 역시 자신의 외집단 개별화처치의 제한점을 이상과 같이 특정 외집단 성원의 속성가가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논의하였다(Wilder, 1978 p1373). 그러므로 외집단 개별화는 선택적 차별감소 방안인 것을 알 수 있다.

### 개인의 정체정의와 타인의 정체 지각

실험 1과 2에서 적대적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도 내집단 개별화를 통해서 차별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내집단 개별화가 자신을 개인정체로 정의하게 하고 또한 상대방을 개인정체로 지각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을 실험 3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개인의 정체정의가 타인의 정체 지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특히, 사회정체조건에서 내집단을 지지하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의견에는 크게 찬성하지만 내집단을 지지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것(실험 3)은 범주화로서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고, 내집단 규범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정체조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4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내외집단 성원에 대한 정보처리에서 범주정보 사용량과 지지정보 사용량을 산출하여 검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을 사회정체로 정의하면 내외집단 사람들의 개인의견에 대한 찬성도와 호감도 판단에서 지지정보사용량이 범주정보사용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화 조건에서는 두 정보 사용량간 차이가 없었다(찬성도



판단에서 범주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 1.19, 지지정보 사용량= 7.81. 개별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21, 지지정보 사용량= -1.36:  $F(1, 28)=13.52, p<.001$ ; 호감도 판단에서 범주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05, 지지정보 사용량= 4.62. 개별화조건의 범주정보 사용량=-1.15, 지지정보 사용량= .35:  $F(1, 39)=3.60, p=.065$ ). 즉, 사회정체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 내집단 성원이라도 내집단 규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안하면 싫어하고,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중심적 판단은 타인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가져온다. 내집단을 지지하는 사람이 매우 합리적이고 내집단을 지지하지 않는 외집단 성원이 불합리하다고 지각하거나(실험 3) 우리 인문학부를 지지하는 자연학부생은 진취적이고 선량하다고 지각한다(실험 4, 표 7과 표 8). 선행연구(위광희와 이수원, 1997b)에서는 자연학부생일지라도 인문학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론적이고 언어적이어서 인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자연학부를 지지하는 인문학부생은 기계적이고 수리적이라고 자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개별화조건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정체로 자신을 정의하면 왜 이러한 왜곡된 지각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회집단은 규범(norms)을 갖는다. 규범은 그 사회에서 정당하게 수용될 수 있는 역할 수행과 관련된 기대들이다. 그 사회에서 역할의 내용이 곧 규범이다.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원활하게 하고, 예측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집단의 대표적 특성이 만장일치성이라면(Allen, 1975), 규범이 사회가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통일성(uniformity)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사회정체로서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 그 사회정체가 가진 규범들을 자신의 틀로 지니게 되며 개인의 것이 된 사회정체의 틀로서 타인을 평가하고 왜곡하게 된다(이수원, 1989; 위광희와 이수원, 1997a).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이 집단간 차별 과정에 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정체 정의를 위해서 내집단을 처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내집단을 처치하여서 얻어진 결

과인지, 아니면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실험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하고 서명하게 한 관여처치에서 얻어진 결과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 자아중심성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인지, 특정한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광배(1994). 폴그라프와 최면. *법심리학*, 159-190. 서울: 정민사.
- 이수원(1989). 집단고정관념의 변화.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이수원(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사회적 자아중심성.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7권 2호, 1-23.
-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 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권 1호, 129-152.
- 이진환(1989). 부산 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이지연(1997). 정보통합 양식의 발달: 평가적 의미에서 서술적 의미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위광희·이수원(1997a). 역할 관여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제15집, 205-224,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위광희·이수원(1997b). 사회적 범주화의 효과: 타인지각에서 내집단성원 정보와 내집단지지 정보가 공존할 때. *교육논총*, 제13권, 19-47, 한양대학교 한국 교육문제연구소.
- Allen, V. L.(1975). Social support for non-conform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1-43.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Addison-Wesley.
- Amir, Y.(1976).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 changes of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 Ashmore, R. D.(1970). Prejudice: Causes and Cures In B. E. Collins(Ed.), *Social Psychology: Social Influence, attitude change, group process and prejudice*.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illig, M., & Tajfel, H.(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ranthwaite, A., & Jones, J. E.(1975). Fairness and discrimination: English versus Wels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323-338.
- Brewer, M. B., & Silver, M.(1978).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task characteristic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393-400.
- Linville, P. W., Fischer, G. W., & Salovey, P.(1989). Perceived distribu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Empirical evidence and a computer s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65-188.
- Miller, D. & Brewer, M. B.(1986). Categorization effects on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 In J. F. Dovidio & S. L. Ga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209-230). Orlando, FL: Academic Press.
- Park, B., & Rothbart, M.(1982).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51-1068.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Billig, M.(1974). Familiarity and categorization in intergroup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59-170.
- Tajfel, H., & Billig, M. G., Bundy, R. F., & Flament, C.(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7.
- Tajfel, H., Jahoda, G., Nemeth, C., Rim, Y., & Johnson, N. B.(1972). The devaluation by children of their own national and ethnic group: two case stud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88-96.
- Taylor, S. E., Fiske, S. T., Etcoff, N. L. & Ruderman A. J.(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Wilder, D. A.(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 **The Effects of Ingroup Individuation on Intergroup Discrimination**

**Kwang-Hei Wei**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test three hypotheses on intergroup discrimination process: (1) that intergroup discrimination might be lessened when the person defines himself as personal identity, and (2) that there are social egocentrism in the group relationship, and (3) that when the person defines himself as social identity, group-norm oriented processing will be done. Four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is. Three experiments(experiment 1, 2 and 3) among them employed artificial categories(yellow and pink group but, all subjects were yellow in real), and one experiments(experiment 4) employed natural categories(humanity major vs. science major but, only humanity major students participated).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Experiment 1, 2, and the second by those of Experiment 3 and the third by those of Experiment 4.